

화
정

중국 고대의 화정에 관하여

‘화정’(火正)은 중국 고대에 불을 관장하던 관리를 말한다. 주요 직책은 화재 예방이나 소방 등 불의 관리를 주관하는 것으로서 소위 ‘화정’(火政)이라고도 한다.

『한서(漢書)』의 화정에 관한 해석을 볼 때, 중국 고대에 불을 관리한다는 것이 국가를 통치하는 중요한 일이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화정을 맡는 사람은 절대로 보통 사람일 수 없다. 사서의 기록과 민간전승에 근거할 때, 상고 시대에 있었던 네 명의 화정을 살펴볼 수 있다. 지위가 가장 혁혁한 화정은 당연히 황제의 반열에 있는 ‘염제’(炎帝)를 들 수 있다.



전설에 의하면, 염제는 상고시대 한 부족의 수령이었다. 당시 천하에는 염제와 황제(黃帝) 두 부족만이 있었다. 염제는 화덕(火德)으로 인해 천하를 얻어 왕이 되어 염제라 불렸다. 일부 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염제의 부족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고신씨(高辛氏)라 불렸다. '신(辛)의 본래 글자는 '薪(薪)으로서,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는 모습을 상형화한 것이며, 이것이 불을 얻는다는 의미로 파생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이 부족의 이름인 고신씨의 본래 의미가 화신(火神)이며, 이들이 화신을 숭배하는 부족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염제가 돌을 뚫어 불을 얻고, 후에 조왕신으로 화했다는 사서의 내용은 이 부족이 불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염제는 사서와 전설에서 불의 신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염제가 실제 화정의 직책을 맡아서라기보다는 불에 대한 숭배가 추상화되어 나타난 상징적 의미로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은 '수인씨(燧人氏)가 나무를 문질러 불씨를 만든 이야기를 보면 분명해진다. 수인씨는 중국의 전설에서 인류가 인위적으로 불을 얻게 된 첫 번째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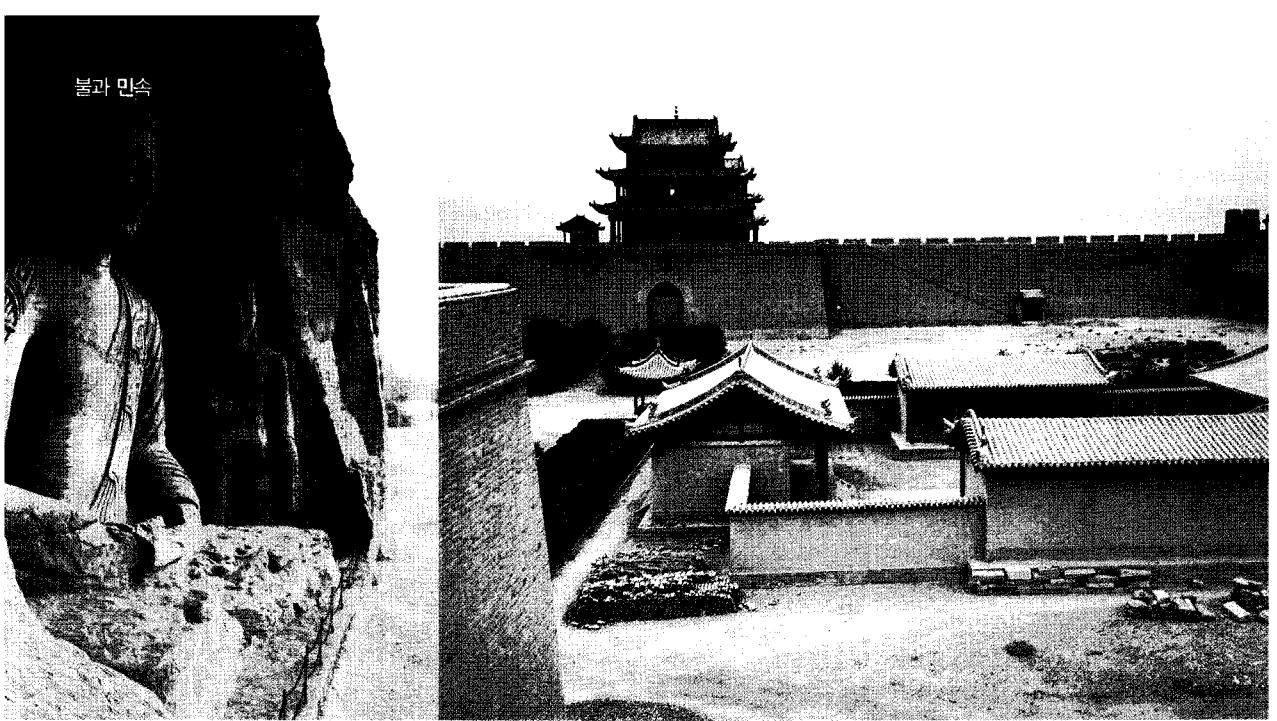
전설에 의하면,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불을 사용할 줄도 몰랐고, 심지어는 불의 존재도 몰랐다. 추위도 온기를 취하는 방법을 몰랐고, 음식물도 날것으로 먹었으므로 생활이 아주 힘들었고 수명도 짧았다. 이에 하늘의 신이 인간세상의 고난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도록 번개를 쳐서 산에 큰 불을 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가기 급급한데 오직 한 젊은이만 용감하고 총명하여 공포스러운 불이 야수들도 쫓아 버리고, 가까이 가면 따뜻하며, 불에 타 죽은 짐승을 먹으면 아주 맛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제야 사람들은 불이 귀한 줄 알고,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불을 어떻게 일으키는지는 몰랐고, 단지 불씨를 꺼지지 않게만 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한 번은 불을 지키는 사람이 잠을 자서 불씨가 꺼져버렸다. 이때 하늘의 신이 이 젊은이의 꿈에 나타나, 수명국(燧明國)으로 가서 불씨를 가져오게 하였다. 젊은이는 천신만고 끝에 그곳에 가서 우연히 큰 새가 부리로 나무를 쪼 때 불꽃이 이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본받아 나뭇가지를 마찰시켜 불을 얻었다. 젊은이는 불씨와 나무를 문질러 불을 내는 방법을 갖고 고향에 돌아왔다. 사람들은 그를 수령으로 추대하고, 그를 '불을 얻은 자'라는 뜻을 가진 '수인(燧人)이라 불렀다.



수인씨의 이야기와 염제의 이야기를 비교하면, 당연히 전자가 화정임을 알 수 있다. 전자에는 불을 이용하고, 찾고, 일으키고, 보호하는 행위가 나타나 있다. 물론 전설은, 특히 상고 시대의 전설은 흔히 어떤 것을 발명하는 신의 형상을 서술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전설 속의 수인씨,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젊은이는 결코 '어떤 사람'이거나 '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씨족 혹은 부족의 대표이며, 수인씨가 나무를 문질러 불을 얻은 과정은 선민(先民)들의 생활을 반영하고 있다. 수인씨의 영광은 당연히 그 시대의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어떤 전문가는 '수인씨'의 실제적인 의미가 "나무를 문질러 불을 얻은 조상"이라고 해석한다. 수인씨의 화정 역할은 염제와 비교하면 훨씬 본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인씨의 업적은 '불을 일으킴'에 있지 '불을 관리함'의 의의는 부족하다.

즉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고대사회의 화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유명한 화신인 '축융' (祝融)을 들 수 있다.

전설에 의하면, 축융은 태어나서 본래 '중려' (重黎)라 불렸고, 천성이 불을 좋아하여 커서도 불로 밥을 짓고, 난방하고, 어둠을 밝히고, 짐승과 벌레를 쫓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불의 전문가였다. 당시 수인씨가 이미 불을 일으키는 방법을 발명하였지만 원거리를 움직이는 부족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중려는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돌을 부딪쳐서 불을 얻는 방법을 발명하였다. 그래서 황제에 의해 화정관(火正官)으로 임명되었다.

이후의 부족 전쟁에서 축융은 화공전법을 발명하여 큰 공을 세웠다. 그리고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서 불 사용을 보급하여 불 없이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였고, 불로 교화를 베풀다 하여 사람들의 추앙을 받아 화신(火神)으로 모셔졌다.

위에서 수인씨의 전설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언급한 것과 같이, 전문가들은 축융씨가 실제로는 수인씨 이후 나타난 '불을 일으키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에 능숙한 부족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만약 수인씨 시대에 사람들이 채집과 어렵 등으로 이주와 유럽의 생활을 했다고 하면, 축융씨 시대에는 정착생활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축융씨가 수인씨와 다른 점은 인류가 불을 사용하는 기술을 향상해 불을 정착 환경의 일상생활로 끌어들이었다는 점과 불을 사용하는 기술을 널리 보급했다는 데 있다. 이런 면에서 역사는 축융씨를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화정'이라 평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세 화신은 사서에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역대 문인들의 추앙을 받았고, 지

금도 혁혁한 명성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신앙은 아주 복잡다양하다. 관방(官方) 혹은 주류사회 외에 민간에도 적지 않은 지역적 화신숭배가 행해지고 있다. 비록 역사나 문화 전체의 시각에서 볼 때 상술한 세 화신보다 영향력이 미미할지라도 일정한 지역적 범위 내에서의 영향은 아주 크고, 또 민중의 화정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각지의 수많은 화신숭배 중에서 하남성(河南省) 상구(商丘)지역의 ‘역백’ (鬲伯) 숭배를 상술한 세 화신과 비교할 수 있다. 역백은 수인씨나 축융씨와 같이 불을 일으키고 보호해서 황제로부터 화정의 직책을 받은 경력이 유사하다.

현지 사람들의 전설에 의하면, 역백은 원시사회에서 상(商)의 한 부족연맹 추장의 아들이었는데, 이곳에 파견되어 화정을 맡아 민중들에게 불씨를 보존하고 불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말은 바 본분을 다했고, 죽은 후에 신령으로 모셔졌다. 동시에 이 지역에는 역백이 본래 하늘에 있던 화신이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인간 세상에 불이 없어 고생하는 것을 보고 몰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다 벌을 받아, 인간 세상으로 내려올 때 또 몰래 불씨를 숨겨 상(商)에 왔다고 한다. 천제(天帝)가 역백이 불을 훔친 것을 알고 홍수로 역백을 징벌하여 인간 세상의 불씨를 다 물에 잠기도록 하려 하자, 역백은 높은 대를 쌓아 비를 막는 집을 만들어 불씨를 보호했다. 홍수가 물러난 후, 피난 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높은 대에 불씨는 아직도 있는데 역백이 그 옆에서 굶어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전설은 중국의 프로메테우스 신화라고 불린다. 주류 세계의 화정 전설과 비교했을 때, 이 전설은 프로메테우스 신화와 마찬가지로 영웅의 희생정신을 부각시키고 있지, 그가 불을 관리하고 사용한 업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원시시대의 사람이라고 묘사되고 있지만, 어떤 학자는 실제로는 이 전설이 나타내고 있는 사상이 아주 후대의 것이며, 근대 사람이 옛 사람의 일을 빌려 영웅의 희생정신에 대한 추앙을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화정과 화신은 여기에서는 단지 빌려 쓴 의미일 뿐이지 실제 의미는 아닌 것이다.

상술한 네 명의 화정은 모두 화신으로 모셔졌다. 중국의 화신 숭배는 아주 복잡하여 지존의 신을 하나 골라내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유일한 지존 화신을 추대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화신이 각 시기나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불에 대한 실제상황이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네 화신이 담고 있는 문화적 의의는 사람들이 불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이다. 화신이 불을 사용하고, 특히 불을 일으키고 보존한 업적에 관한 신화적 기억의 보존과 전승은 선인들이 어렵게 세상을 창조한 데 대한 아주 깊은 기념과 존경을 담아내고 있고, 신화의 전승과 함께 또한 계속 전승되고 있다. 축융의 전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불을 정착생활 전반에 끌어들이는 기술적 진보에 대한 찬미다.

그러나 불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우환의 한 요인으로서 조금만 부주의해도 큰 재난이 될 여지가 많다. 그래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후세 화정들의 아주 중요한 직무가 되었다. 민간에서도 이 문제를 중시하였으며, 그것은 화재예방을 직무로 하는 일련의 화신들을 보면 알 수 있다. ☉

